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에베소서 1:3-6)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싶다고 들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전에 한국에서 인턴쉽을 위해서 미국에 온 한 청년을 만난적이 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당연히 믿겠다고 하면서 영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올때까지 자기 인생에 한번도 자기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에게서 처음 들었다는 것이다. 그 청년입장에서 보면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나는 그 청년을 어떻게 만났을 까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었고, 내가 한 일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창조는 우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창조 이후 모든 생성과 소멸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창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창조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많은 만남과 사건을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 아내가 어렸을 적에 소보루빵을 하나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간직했다가 정말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며칠 후에 먹으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방이 딱딱해지고 곰팡이가 나서 결국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복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이 복음이 나에게 축복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어려울까?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렵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도 다 처음 사는 인생이지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아무리 연세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일을 다 미리 알고 정확하게 살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가나안땅을 눈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의 행할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앞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새롭게 해야 한다.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믿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고 영원한 근본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나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말씀인줄 믿기 바란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과 작년까지 우리는 2년이 넘도록 온 사회가 마비가 된 코로나 사태를 거처왔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경제도 많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가? 아닙니다. 다 지나갔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바로 로마의 옥중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3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한다. 사도바울은 3차 선교여행 후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거기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

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쓴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3년간 머물며 두란노 사역을 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그 감옥속에서 쓰여진 이 서신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복음의 풍성함과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왜 에베소 교회에는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라 불리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서 우상섬기는 사람들의 본부이기도 했다. 거기에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공격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속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치고, 내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과 거짓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를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들어온 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또 가치없게 여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걸 그러면 안된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서 상황과 문제로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싸워 이기는가를 나누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다.

1.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뛰어 넘어서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더라, 백성이라더라.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자기 확신이란 이런 것이다. 제가 때때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잘 고치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컴퓨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분에게는 제가 컴퓨터는 못고치는게 없는 전문가처럼 보일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보다는 컴퓨터를 잘 알고 잘 고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만일 남들이 나를 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나는 전문가야'라는 나의 자기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전문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더라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로 믿어지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무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아니라 저는 완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믿는다. 왜냐면 문제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할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수 없는 것이 있다. 사실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면, 특히 돈문제 같은게 생기면, 나에게 충분한 돈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수 없는게 문제이다. 사실은 그런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녀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사실 우리가 해결할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결국 내가 승리하더라, 내가 기도한대로 되더라! 믿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되는경우도 많이 봤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심지어 하나님에게 섭섭해질 정도의 결과까지 오는 것을 봤다. 그렇게 기대하면 안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세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나의 뜻과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을 향한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땅의 노예로

400년이나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기 바란다. 그러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일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을 믿기 바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가? 괜찮다. 뻔뻔해도 된. 이건 내가 하나님 자녀 하겠다고 우기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고백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간에 그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란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오늘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사도바울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한다. 내가 어떤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 드리면, 모든 흑암을 물러갈줄 믿는다. 이 찬송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기 바란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일반 사람들이면 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나? 그것도 선교하다가, 복음전하다가 감옥갔는데.. 그러나 바울은 진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진짜 중요한 우리들의 무기는 감사와 기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4:6-7절 말씀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속이지만 그 상황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 이 괴로움 속에서 찬양할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 오히려 이 어려움은 내가 능히 감당할 만하니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을수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우리들의 무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수 있으면 찬양할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찬양이 절로 나오지만, 고통과 문제 속에 있을 때에는 찬양이 잘 안나온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해결할수 없어 목숨을 끊어 버리는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문제속에서 시달리던 나, 답이 없어 헤매이던 나에 새롭게 시작할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고 고백하는 그 누구나 다 누릴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을 누리고 고백하고 쓰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43: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다. 올해 딱 50이 되는데, 만일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하면 딱 반을 산

것이다. 사람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라서 오히려 즐길수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풍량이 일고 내 목숨을 앗아갈만한 큰 파도가 오기도 한다. 그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맞서서 이겨낼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도가 나에게 오는 순간에 파도와 맞서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다. 왜냐? 파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찬양하는 순간, 내가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는다.

나는 중학교 3학년때부터 찬양리더를 했다.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라서 노래를 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리더를 하게 되었다. 그때가 제 나이 15살 때였으니까, 중간에 약 2년 정도를 제외하고 약 33년동안 찬양인도를 해오고 있다. 한 때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성대가 너무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20분 정도면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찬양만 하고 나면 목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는 찬양인도를 내려놔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이, 그동안에 내가 찬양인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참 열심히 찬양할수 있었구나, 이게 참으로 감사하게 다가오는것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그러면 소리 내서 찬양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몸이 피곤해도 강제로 열심히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였다. 왜냐하면, 찬양은 고백이기 때문이다. 누가 가짜로 나를 칭찬하면 좋겠는가? 적어도 저는 찬양하는 모든 순간 진심으로 고백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항상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셨다. 찬양중에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진짜로 힘들고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그 때도 나는 찬양할수 있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의 경황 속에서 어쩌면 찬양할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신다. 이것은 그냥 억지로 그래도 찬양하라가 아니다. 그 문제와 아픔 너머에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것도 그 누가 그냥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뜻이 아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해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신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 의미는, 한번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나. 분명 찬양할수 있을거야. 그 아픔과 불가능 앞에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인 나를 바라봐라, 내가 그 어떤 상황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큰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바란다.

지난 주에 WRC가 한국에서 끝났다. 전세계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만대의 삶을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였다. 이런 만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유일한 길, 영적 서밋의 길을 가야 한다. 무엇이 유일한 길이고 영적 서밋인가? 아무도 누릴수 없는 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불가능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또, 시대를 앞서가며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이루실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맡기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일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저 준비하라는 것이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수 있는가? '내 능력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지난 주 이유라는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려려고 덤비는 사단 앞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풍랑과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평생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